

## 李退溪의 經書註解 研究(二)

慶北大學校 教授 宋 兢 變

### 《目 次》

#### 一. 李宏仲에의 答書

1. 四端七情의 解釋 (一)
2. 理顯의 解釋
3. 萬物存立의 原理
4. 四端七情의 解釋 (二)
5. 節度의 問題
6. 理氣概念의 再論
7. 理發氣發의 定理性
8. 性字의 解釋

#### 二. 鄭子中에의 答書

1. 志와 意의 解釋(一)
  2. 理顯과 理隱
  3. 心의 知覺有無
- 其二
1. 志와 意의 解釋(二)
  2. 費와 隱의 해석
  3. 性과 氣 관계

### 一. 李宏仲에의 答書

#### 1. 四端七情의 解釋(一)

다음은 「答李宏仲問目」(以下問目이라함)에서 「四端七情」에 대한 註解를 찾아보기로 한다. 이 「問目」은 文集卷三十六에 收錄되어 있으며 宏仲에게 보낸 세번째의 答書이다. 明宗 16年 辛酉(一五六一)이니까 退溪의 甲年에 당하며 그 내용은 8個項으로 構成되어 있다. 먼저 宏仲은

어떤이는 四端을 情이라하고 또 어떤이는 七情을 情이라 합니다. 情이란 것은 性의 發인데, 七情을 情이라 하였다면 四端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인지요. 그러하다면 사람의 情이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sup>1)</sup>

이質問에서 본다면 情이라는 概念에서 四端의 性格이 무엇인가에 疑問이 있었다고 할수있다. 宏仲이 확실히 알고있는 것은 「情은 性의 發」이라는 것이었는데 四端도情, 七情도 情이라는 說이 있으니 情이란 어떠한 概念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 疑問은 사람의 情에도 결국 두 갈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데까지 推及하게 된다. 宏仲의 質問내용을 더 간추리면 「四端」의 概念이 확실치 못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에 대

1) 或以四端爲情, 或以七情爲情, 情者性之發也. 旣以七爲情, 則所謂四者果何謂耶, 人之情有二致歟.

한 退溪의 答은 이러하다. 첫째 情은 하나라고 하고 하나라는 前提下에 四端과 七情의 概念을 설명한다. 退溪는 「情이 發」했다할때 거기에는 氣가 主로되는 경우와 또는 理가 主로 되는 경우가 있게된다. 前者를 主氣, 後者를 主理라고 하는데 氣의 發은 곧 七情이고 理의 發은 곧 四端이다. 그것은 主氣, 主理의 關係에서이다. 어째서 두가지 理致가 있을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第一項의 答은 이렇게 맺어져있는데 上記의 「...어째서 두 가지理致가 있을수 있겠는가」하고 宏仲의 四端, 七情을 別個概念으로 判斷하려고 하는 疑懼를 명백히 拂拭하게 하였다. 그와같이 두가지 理致가 없다는 論理는 主氣 主理는 「하나의 情」속에 일어나는 現象인 까닭이다. 「하나의 情」에는 理氣가 共在해 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의 情」은 動靜이 本質이며 動靜의 屬性은 強弱이기 때문에 動靜하는 情은 그 強弱으로 말미암아 共在하는 理氣가 때로는 主理의 現象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情」은 固定된것이 아니며 動靜의 世界인 이상 主氣主理의 現象은 당연한 論理이다.<sup>2)</sup>

## 2. 理顯의 해석

宏仲의 質問第二項에 대한 答은 주로 理顯의 해석이 있다. 宏仲은

理는 본래 形象이 없는 것이니 만약에 氣가 없다면 어찌理가 홀로 發할수가 있겠습니까.<sup>3)</sup>

라고 하였다. 이 質問에서 보던 宏仲은 理氣가 不可分の 關係에 있다고 認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氣가 없다면 어찌理가 홀로 發할 수 있겠는가」한 대목에서 宏仲은 氣의 世界는 理가 自己顯現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시말하면 理가 顯現되어서 氣가 生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理氣哲學에서 理와氣는 理는 理요, 氣는 氣라는 無偏의 關係에 있으면서 同時共在하는 存在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宏仲은 理氣無偏이 아니라 氣는 理의 自己展開이라고 할만큼 理氣哲學에서 本領으로 하는 理氣兩者無偏의 原則과는 크게 齟齬된다고 해야할 것이다. 「氣는 理의 自己展開」라는 宏仲의 思考는 이 問目的 第二項以下에서도 堅持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에 대한 退溪의 答을보기로 하자.

## 3. 萬物存立의 原理

우선 退溪는 萬物存立의 原理부터 提示하여 演繹的으로 理氣와 四端七情을 설명한다. 天下에 理없는 氣가 있을수 없고 氣없는 理가 있을수없다고 하였다. 여기의 「天下」

2) 退溪는 主理를 「理顯」, 主氣를 「理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主理, 主氣의 論理에 관해서는 宋兢燮의 論文「李退溪의 理氣互發說의 研究」참조 慶北大退溪研究所(一九七四年) 刊「韓國의 哲學」第2號所收.

3) 理本無形, 若無是氣, 則奚有獨發之理乎.

란 宇宙界에서 人間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總括이며 이 모든 것 즉 萬物은 理와 氣로 存立하는 것임을 宣言한 말이다. 따라서 情이라든지 四端또는 七情등도 理氣에 의해 存立한다는데는 결코 例外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天下」라고 表現되는 萬物의 概念을 理氣哲學에서는 어디까지로 그 限界를 두는가, 이에대해 朱子의 말을 參考하면 그와 같음을 首肯할수 있을 것이다.<sup>4)</sup>

萬物에는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가 없는가답에 四端은 理가 發하여 氣가 따르고 七情은 氣가 發하여 理가 타는(乘)것이다 라고 하고서 다시 敷衍하기를 「만약에 氣가 따르지 않는 理는 나눌수가 없고 理가 따르지 않는 氣는 곧 利慾에 빠지니 禽獸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退溪는 「理發而氣隨之」와 「氣發而理乘之」를 별할수없는 定理라고 規定하였고 이러한 自身의 規定은 中庸을 註解한다면 확실하다고 附言하였다. 經書특히 「中庸」의 首章과 「孟子」의 四端章은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 4. 四端七情의 해석(二)

第三項에서 다시 四端七情을 묻고 人心道心에 관해서 質問한다. 즉

이미 四端과 七情을 말하고 또 人心道心を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sup>5)</sup>

이 質問에서는 내용이 簡略해서 宏仲의 意中이 충분히 表現되지 않았으나 다음의 退溪答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때 宏仲은 아마 四端七情과 人心道心과의 關係를 알고져 한듯하다. 이에 대한 退溪의 答은 「人心은 곧 七情이요 道心은 곧 四端이나 두個의 道理가 있는 것이아니다」고 한것은 第一項에서 情에 두개의 理致가 있지 않다고 한데에서 人心이 七情이요, 七情이 四端으로 並移되는 이상 人心과 道心은 역시 別途의 것이니라 같은 原理위의 두 表現이라함은 論理上 그러할 것이다. 이 대목에 관해서 退溪는 「答奇高峯問目」(卷十六)에 詳細하다고 하여 더이상의 論述을 하지않았다. 宏仲 質問의 第4項은 보자.

七情과 四端의 서로가 「中」이 될 때도있고 「不中」할때도 있는것은 어찌된 일입니까.<sup>6)</sup>

「中」은 中節이라고도 하여 「中庸」首章에서 볼수있거니와 過不及이 없는 이른바 「調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 宏仲은 理解가 확실치 못한듯하다. 그러나 中節이라는 調和의 必要는 「七情」에 要求되는 것이지 四端에는 그 調和의 要求가 없는

4) 「物」의 概念은 有形的일 것은 물론 感覺에서 오는 感應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大學或問에 「凡有聲色貌象之盈於天地之間者, 皆物也.」라 했고 또 朱子語類15大學 賀孫錄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眼前凡所應底都是物.」

5) 既謂之七情四端, 而又謂之人心道心者何也.

6) 七情四端有中, 有不中者何也.

것이 通說이다. 그것은 四端을 純善으로 보고 七情은 惡으로 偏走될 可能性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을 純善은 理로 惡의 可能性을 氣로 並稱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質問에서 보는 限 宏仲은 四端에도 中節이 要求되는 것으로 보고있는 듯하다. 이러한 四端의 解釋은 宏仲說의 특징이라 할수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退溪의 答을 보면 「節度を 얻으면 서로 들어맞고 節度を 얻지 못하면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宏仲은 이러한 설명에 역시 疑問을 풀리지 못하였다. 第5項은 그것에 관한 質問이 된다.

## 5. 節度の 問題

그러하다면 그 節度에 맞고 맞지않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sup>7)</sup>

여기서 退溪는 朱子가 張敬夫에게 보낸 글을 引用하여 答으로 삼는다. 朱子는 이렇게 답하였다.

物에 感하는 것이 心이요 그心이 動한 것이 精입니다. 精은 性에 根源하고 또한 心의 主宰를 받는 것인데 心이 主宰가 되면 그動하는 것이 節度에 맞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人欲이 그 欲을 부릴수 있겠습니까.<sup>8)</sup>

여기서 重要한 것은 「心의 主宰」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 좀더 朱子說을 살펴 보면

다만 心의 主宰가 되지못하면 情이 스스로 動하므로 人欲에 홀려서 그 (動에) 正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sup>9)</sup>

人欲에 홀려서 그 正을 얻지 못한다면 心의 主宰라고 할수없다는 설명으로 「心의 主宰」의 뜻을 다소는 理解할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명히 把握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句節을 보자.

그러므로 天理와 人欲에 대한 判斷과 節度에 맞는가의 與否 限界가 곧 心이 主宰하고 主宰하지 못하는데 있는 것입니다.<sup>10)</sup>

여기서 「心의 主宰」의 뜻이 명백해진다. 그것은 天理가 무엇이고 人欲이 무엇인가는 判斷能力을 意味하는 것이다. 또 節度에 맞고 또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 區分 또는 限界지을수 있는 判斷能力 이것을 朱子는 「心의 主宰」라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朱子는

7) 然則其所以爲中節不中節者奈何.

8) 朱子答張敬夫書曰, 喜怒哀樂感於物者心也, 其動者情也. 情根乎性而宰乎心, 心爲之宰, 則其動也, 無不節矣. 何人欲之.

9) 惟心不宰而情自動, 是以於人欲而每不得其正也.

10) 然則天理人欲之判, 中節不中節之分, 特在乎心之宰與不宰.

情이 비록 節度에 맞는다 하여도 그것은 역시 情입니다. 그리고 그 節度에 맞게하는 原因이 「心」입니다.<sup>11)</sup>

고 하였으니 「中」은 어디까지나 情의 世界라고 하고 다만 「心」이라고만 할 때는 「節度에 맞게하는 原因이고 「心の 主宰」라고 하는 때는 節度에 맞는 חות을 判斷하는 能力을 해석하게 된다. 朱子는 原因과 判斷을 例를 들어 설명한다.

이제 突然히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짐을 보았다는 것은 이 心이 感하는 것이요. 그리고 반드시 슬퍼하고 惻隱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精의 動입니다. 그 父母에게 內交할려고 하고 要譽를 구하고 그 우는 소리가 싫어서 슬퍼하고 惻隱이 여겼다면 이것은 心이 主宰하지 못하여 正을 잃은 것입니다.<sup>12)</sup>

朱子の 이 글에서 看過할 수 없는 概念이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心感」인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진다는 客觀的인 動作이 마음에 感覺되어 진다는 것으로 感覺의 段階가 있고 둘째는 「情動」인데 이것은 惻隱이 여겼다면가 슬퍼한다면가 하는 感動이 있게 된다. 이 感動을 「情動」이라 하는데 感覺에서 情動은 必然的으로 있게 된다. 즉 感覺이 있을 때 슬픔과 惻隱(情動)은 必然의 關係라고 보는 것이다. 孺子가 우물에 빠졌다는 客觀的事實이 발생했을 때 惻隱한 마음과 슬픈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情動이 단일 孺子의 父母에게 交際하기 위해서 하던가 鄉黨에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우는 소리가 싫어서라는 利害 때문에 슬퍼하고 惻隱히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心の 主宰」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利害를 제는 마음은 人欲이기 때문인 것이다. 利害를 제는 行動을 排除하는데 「心の 主宰」가 要求되어 진다고 한 것이다.

## 6. 理氣概念의 再論

이상의 張敬夫에 보면 朱子의 글 내용을 退溪는 「이 말이 명백하고도 當然하다」고 하고 배우는 사람은 여기에 깊이 考察하고 자세히 檢討하면 스스로 本然의 境地가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宏仲의 質問인 어떻게 하면 中節되게 하느냐는데 대해서는 「다시 別個의 名目을 세울 必要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 質問第6項目에서는 理氣의 概念이 다시 學論된다. 宏仲은 張謹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惻隱에 관해 글을 받은 것 같다. 그 글에 「惻隱은 氣요 惻隱하게 하는 原因은 理이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宏仲의 見解가 附錄으로 실려있어서 여기에 참고한다면 宏仲은

대개 四論은 理의發이요. 發하여 惻隱하게 하고 羞惡하게 하며 辭讓하게 하고 是非하게 하는 것은 氣이다.<sup>13)</sup>

11) 蓋雖曰中節然是, 亦情也. 但其所以中節者乃心爾.

12) 今夫乍見孺子入井, 此心之感也. 必有怵惕惻隱之心, 此情之動也. 內交要譽惡其聲, 心不宰而失其正也.

13) 夫四端理之發, 其所以能發爲惻隱・爲羞惡・爲辭讓・爲是非者氣也.

라고하였다. 여기의「...하게하는 것」을「所以能」이라고 하는데 이 所以能을 당연히 理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어찌하여 宏仲은 이것을 氣라고 하느냐 일견 矛盾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宏仲은 그 나름대로의 論理가 있다. 그것은 다음에 계속되는 이項의 나머지 質問內容에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理는 本來 形象이 없는 것이니 이氣가 없으면 이理가 나올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仁이 氣를 타고 發하는 것을 惻隱이라 한다.<sup>14)</sup>

「이 氣가 없으면 이理가 나올수 없다」는 論理는 이미 第一項質問을 論評하는데서言及한 바 있거니와「氣는 理가 顯現된 것」이라고한 論理와 같다. 다시말하여 理의 自己顯現이라는 뜻이다. 그러하므로 末尾의「仁이 氣를타고 發하는 것을 惻隱이라 한다」는 論理를 理解하게 된다. 仁의 自己顯現이 惻隱이되며 顯現된 世界가 氣 즉 情이므로 仁에서 顯現된 惻隱을 氣라고 하지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李宏仲은「所以能」이 性이 아니라 情이라고 하는 論據는 情이 없다면 性이 存在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氣가 없으면 理는 있을 곳이 없다.<sup>15)</sup>는데 있다. 그것은 理의 自己顯現이 氣라는 觀點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 7. 理發氣發의 定理性

退溪는 이 宏仲의 說에 대해서 마작마무리로 자신의 說의 확신을 표명한다.「四端 理之發而氣隨之」하고「七情氣之發而理乘之」는 불변의 定理인데 이에 비추어 宏仲의 說이 만약에「喜怒哀」라는 七情을 가지고 喜怒哀는 氣요 喜怒哀하게 하는 所以는 理이라고 한다면 타당할 것이다. 惻隱이라는 四端을 가지고 惻隱은 氣요, 惻隱하게 하는 所以는 理이다라고 한다면 錯誤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끝을 맺고 이러한 착오가 훗날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sup>16)</sup>

이 말에 退溪는 四端은 본래가 氣에서 發하여 理로 되어진다고 疑心할까 두려워하였다. 이 後人에게 주는 두려움에서 人馬說과 火薪說의 두가지의 比喻로서 다시 詳論하고 있다. 그두 比喻를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人馬說은 性理大全의 太極圖說 第21章小註에 나오는데 보면, 어떤사람이 말(馬)을 타고 걸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이 가고 있다 하겠는가 아니면 말이 간다고 하겠느냐고 할 때 무어라고 對答하겠는가 그것은 사람이 가고있다고 한다면 옳거니와 말이 가고 있다고 하면 옳지 못하다 왜 그와같은 答이 나오느냐를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이 말을타고 갈때 사람이 말의 主人이되고 말은 服從하는 것인 즉 잘 수 있게

14) 理本無形, 無是氣, 則理做出來不成, 故仁之乘氣而發者曰惻隱.

15) 四端理發而氣隨之, 七情氣發而理之, 確乎其不可易也. 今也, 若謂喜怒哀而曰, 喜怒哀氣也, 所以喜怒哀理也, 則猶之可也. 若謂惻隱而曰, 惻隱氣也, 所以惻隱理也, 則吾恐將使見之者, 疑四端本出於氣而成之.

하는 者는 곧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에 대한 判斷은 말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간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만약에 宏仲의 說과 같이 判斷한다면 사람이 말의 主宰者가 되지않고 말이 사실상의 主人이 될 것이다. 이러한 判斷은 正當하다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문제로는 火薪說인데 불과 습(薪)의 관계의 比喻이다.<sup>17)</sup> 불은 본래 形이 없는데 습을 통해서 그 形과 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밝음은 비록 불이지만 이것을 밝게하는 所以는 습이라는 判斷이라면 옳다. 그런데 사람들이 밝게하는 所以를 불이라고 判斷하니 이것은 잘못된 判斷이다. 判斷이 잘못되었다는 理由는 다름아니라 形과 影을 주재하는 것은 불인 까닭이다. 이러한데 만약 宏仲의 說로 한다면 불의 밝음은 불이 아니라 습이라고 해야 論理上妥當할 것이다. 그러므로 退溪는

惻隱은 理의發이요 이것을 發하게 하는 것(所以)은 氣라면 옳거니와 만약에 惻隱은 氣요 惻隱하게 하는 所以는 理라 한다면 옳지 않을 것이다.<sup>18)</sup>

라고 하였는데 惻隱은 氣요 惻隱 할수 있게 하는 것(所以能)은 理라고 하였음은 그 실은 陳北溪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 北溪는 「所以能」說을 朱子에 물었더니 물리침을 당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退溪는 이에대해 일찍부터 疑心하고 있었다. 그런데 宏仲이 또한 惻隱을 氣라고 하는 한마디는 너무나 氣를 주장하여 理의 본체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錯誤라고 하였다. 어찌하여 착오인가의 설명이 다음에 논술된다. 즉 理가 發하여 四端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氣이지만 이렇게 할수 있는 (所以能)것은 理이다. 그런데 이제 宏仲이 所以能 세 글자를 오히려 氣에 귀착시켰으니 그 잘못이 陳北溪의 주장보다 더욱 심하다 해야겠다.<sup>19)</sup> 理가 氣를라고 行한다는 설명은 朱子가 일찍이 「人乘馬說」로 비유하였는데 宏仲도 이 비유에 근본하였으므로 잘못은 없다고 보겠고 또 火와 薪의 비유도 역시 그 人乘馬說과 같은 것이니 異例적인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다만 그 所以能의 세 글자를 습(薪)에다 돌린 것이 옳지 못하다. 그것은 습이 불타는 性質도 말미암은 것이므로 所

16) 譬而論之, 有人乘馬而行于塗, 指以謂人乎, 以乎謂馬乎, 若謂之人則可, 若謂之馬則不可. 何以言之, 方其乘馬而行人主乎馬, 馬服於人則行者, 雖馬而行之者人也. 然則非馬之行, 實人之行也.

17) 又蓋觀夫火乎, 火本無形, 假薪而做得形影. 然則明者, 雖火而其所以明之者薪也. 然而謂之者, 皆以爲火而未聞, 以薪者何也, 假之者, 雖薪而其所以能, 主張者火故也.

18) 愚故曰, 若謂惻隱理之發, 其所以發之者氣也 則可若曰, 惻隱氣也, 所以惻隱理也. 恐或不可.

19) 滉亦嘗疑惻隱氣也一語, 太主張氣字不無侵過理界. 分了宏仲非之似不爲無理, 但宏仲說亦有差, 蓋理發爲四端所以發者氣耳, 其所以能然, 實理之爲也. 今宏仲乃以所以能三字歸之氣, 其失殆甚於北溪之說矣.

以能은 곧 그것이라는 의미이다.<sup>20)</sup> 이렇게 論理를 전개시킨 退溪는 무릇 論述이란 무엇보다도 義理가 精微해야 함을 강조하고 毫釐의 差가 결과에 가서는 千里의 어김이 있는 까닭을 알아야 할것 이라하고 정밀해야함을 가르치고 있다.<sup>21)</sup> 退溪는 朱子의 人乘馬說은 「性理大全」의 太極圖說의 제21章 小註에 나와있다고 出典까지 밝혔는데 人乘馬說은 「朱子語類」에도 보인다.

## 8. 性字의 해석

宏伸의 제 8項의 질문은 「天地之性」이 된다.

天地之性の「性」字는 어떠한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黃勉齋는 性이란 「이 天地가 萬物에 부여한 本然의 것으로서 氣質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天地之性이 바로 거기에 있다하였으니 이 性이 잠시라도 氣質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며 그리고 「天地」라고 한것은 純善至善함이 곧 天地가 부여한 本然임을 가리킨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性字는 天地의 本體를 가리킨 것입니다. 또한 人物의 稟性을 가리키는 말입니까.<sup>22)</sup>

이에대한 退溪의 답은 張橫渠의 말에 「善을 돌리키면 天地의 性이 곧 있다」고 함을 논한다면 옳거니와 만약에 「天地之性 중에 사람이 貴하다」함을 논한다면 옳지 않다고 하였다. 宏伸의 제 9項의 질문을 義理의에 대해서이다.

張南軒이 말하기를 血氣의 怒는 있어서 아니되고 義理의 怒는 있어야한다 하였으니 다 같은 怒인데도 血氣와 義理의 구별이 있는 것은 어쩔 일입니까.<sup>23)</sup>

性에 天地(本然)之性과 氣質之性의 구별이 있다는 데서 온 疑問으로서 宏伸은 怒에 血氣와 義理의 구별을 물었었다. 이에 대한 退溪는 張南軒의 說을 가지고 답하였다. 대개 情이라는 것은 氣가 發하여 理가 탄(乘)것인데 마음에 거슬리면 怒가 發되 理에 마땅하면 이것은 義理의 怒이요 마땅하지 못하면 血氣의 怒이다. 理가 主宰하고 氣가 그 命을 따르면 이것은 義理의 怒이며 오로지 氣만이 행하고 理가 隱蔽되면 이것은 血氣의 怒가 된다. 그러므로 義理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아니라 氣속에 內在하고 있는 理이며 血氣라는 것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아니다. 그러면 氣와 理가 서로 勝負하여 氣가 거칠어서(驕)이기면 理는 패한 것이요 理가 이기면 氣가 따를(順) 것이다.<sup>24)</sup>

20) 理之乘氣而行，朱子亦以人乘馬出入比之，宏伸人馬之說本諸此其說無病矣，以其火薪爲比亦人馬之類，未爲不可。但又以所以能三字歸之，薪亦不可也。

21) 大抵論說義理精微，最不可輕易，毫釐有差繆以千里故也。

22) 天地之性性字，未詳何謂，竊見勉齋答論性之說曰，是天地賦豫萬物之本然者，而寓乎氣質之中也。故其言曰，善反之則天地之性存。蓋謂天地之性未嘗離乎氣質之中也。其以天地爲言，特指其純粹至善，乃天地賦豫之本然也，然則此性字就天地本體上說乎，就人物稟賦上說乎。

23) 張南軒曰，血氣之怒，不可有義理之怒，不可無均是怒也，而有血氣義理之分者何也。

24) 蓋情者氣發而理乘之者，其於忤逆之來，怒發而當理，則義理之怒，怒發而不當，則是血氣之怒何者。怒之時，理得爲主而氣聽命焉，則是義理之怒也。發之不中，惟是行而理達焉，則是



現象(氣)속에는 理가乘했다함은 氣와 더불어 存在한다는「理氣共在」이다. 이것은 天下에 理없는 氣없고 氣없는 理없다는 萬物存立의 原理을 의미한다. 여기서부터 動靜하는 氣에는 당연히 強弱이 있는 것이나 이 強弱으로 말미암아 理는 隱·顯되어 진다. 이 隱顯은 理가 主宰한다고 설명되어 지는데 氣가 거칠다고 함은 強하여 理가 가리워 (隱)지고 氣가 따른다고 함은 氣가 弱하여 理가 나타난(顯)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感情이 激하였다고 할때 理性은 無力해 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을「氣와 理가 서로 勝負하여 理가 敗한」상태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를 血氣의 怒라하고 理性的인 상태를 義理의 怒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二. 鄭子中에의 答書

鄭子中에게 보낸 이別紙는 明宗16年 辛酉로서 退溪 61才때의 것이다. 「文集」卷二十三 答鄭子中別紙로 수록되어 있는 이글에는 子中은 3個項에 걸쳐 질문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첫번째가 「志」와 「意」에 대한 해석이 있다.

### 1. 志와 意의 해석 (一)

志와 意에 대해 질문을 받은 退溪는 朱子の 說을 인용하여 답한다. 그런데 朱子에 의한 志와 意의 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뜻이 있음을 알수 있겠다.

志는 마음이 가는바가 한결같이 굳게 가는 것이요.

意는 志가 경영하고 왕래하는 것이니 「心の脚」이라고 할 수 있다. 영위하고 계획하며 왕래하는 모든 것은 전부「意」인 것이다.<sup>25)</sup>

이러한 朱子の 설명은 志와 意를 心理的作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

志는 公然한 주장으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意는 私私로운 곳에 가만이 발생하는 것<sup>26)</sup>

이라고 하였는데 비유한다면 志는 「伐」하는 것같고 意는 「侵」하는 것같다고 하였다<sup>27)</sup> 志와 意의 해석에는 이에 달리 설명을 더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한듯하다.

血氣之怒也，所謂義理非在外者，即所乘之理也。所謂血氣非由外至者，即所發之氣，然則氣與理相爲勝負氣贏而勝，則理負理達而勝，則氣順也。

25) 退溪先生文集卷二十三，朱子云，志是心之所之一直去底，意是志經營往來底，是那心底脚，凡營爲謀度往來，皆意也。

26) 又云志是公然主張要做事底，意是私地潛行間發底。

27) 志如伐如侵，合此數說而觀之，志公意私可見。

## 2. 理顯과 理隱

子中의 두번째 질문은 理顯과 理隱이었다. 理가 顯隱된다는 論理는 그대로 어떻게  
 좋이 되고 惡이 되느냐의 문제에 적용된다. 이러한 理顯理隱의 표현은 性理諸書에서  
 보이지 않아 退溪에서 만이 찾아볼수 있는 概念으로서 退溪哲學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뜻을 지니는 말이다. 善惡이 어떻게 규정되어지는가 하는 公理가 여기서 설명되  
 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 退溪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理가 나타나고(理顯)나고 氣가 따르면(氣順)善이요. 氣가 덮어서 理가 가리워지면 (理  
 隱) 즉 惡이다.<sup>23)</sup>

라고 하였는데 이대목은 다음 귀절과 함께 이 別紙 이전에 보낸바 있는 답서에 기술  
 하였던 것이다. 지금 필요해서 다시 기술해진 것이다. 그런데 표현하는데 글字의 사  
 용에는 대단한 고심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氣가 덮는다」에 揜字의 사용  
 에 있어서는 더욱 고심한듯하다. 그만큼 표현에 적절을 기할려는 것이다.

氣가 덮는다는 揜字아래 震字를 놓을까 또는 暴字를 놓을까 하여 推敲하다가 결전을 보  
 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그후 그만 잊어버리고 마침내는 아무 글자  
 도 써넣지 못한채 보내고 말았다. 다시 생각하니 두글자 즉 震字나 暴字 모두가 합당치않  
 으며 차라리 揜字를 넣는 것이 평범하고 무방할 듯하다.<sup>28)</sup>

고 하였다. 理顯이되고 理隱이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動靜은 氣에 속하니 氣의  
 동정으로 말미암아 理는 나타나게 되고 또는 가리워진다는 원리이다. 理가 自己展開로  
 인하여 顯隱되는 것은 아니다. 이 원리는 그대로 善・惡의 문제에도 적용되어 진다.  
 理는 善이므로 理隱되었을때는 惡, 理顯일 때는 善이 된다.

이와같이 理顯・理隱의 원리는 善惡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는 문제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子中의 세째번의 질문은 「心の 知覺有無」에 관한 것이었다.

## 3. 心の 知覺有無

子中은 전에 朴和叔과 「心に 知覺이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바가 있었다.  
 和叔은 子中에게 「心に 知覺이 있는 것은 어째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하고 물었던  
 것이었다. 이에대해서 子中이 회답했는데 그회답이 어떤 내용이 었던가는 이 別紙에  
 서는 알길이 없으나 이에대해 退溪는 그답은 옳았다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和叔이  
 어째서 잘 알 수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까지 하였다. 「心に 知覺이 있느냐」의

28) 理顯而氣順則善, 氣揜而理隱則惡.

29) 初於氣揜之氣字下欲震字, 又欲下暴字敲推未定, 故空其處, 而其後遂忘之, 意不填字, 而送  
 納耳. 今復思之二字皆未當不如下一揜字之平隱無病也.

문제는 일찌기 朱子門下에서도 거론된 바있었다. 退溪는 그 朱子門下에서 거론된 바를 가지고 子中의 회답이 될 것이라고 하였었다. 다음에서 보면

朱子에 묻는이가 있어서 말하기를 「知覺이란 것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氣가 하는 작용이 겠는가」하니 말하기를 이것은 氣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知覺의 理가 있고 理는 아직 知覺하지 못하지 못하는데, 氣가 모여 形體를 이루고 理와 氣가 합해서 知覺할 수 있다.<sup>30)</sup>

이렇게 朱子와 어떤 사람과의 문답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촛불을 例로 들어 비유하고 있다.

촛불이 기름으로 인해서 저와같이 허다한 빛과 불길을 가지는 것과 같다.<sup>31)</sup>

고 하였으며 「깨닫는 것은心の 理요 깨달을 수 있게하는 것은 氣의 작용이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心에 知覺이 있느냐」<sup>32)</sup>에 관해 「知覺이란心の 作用에 의한다」와 「覺하는 것은心の 理요 覺할수 있는 것은 氣의 作用이라」는 朱子의 두가지 說을 인용한 退溪는 다시 자기의 설을 전개시킨다. 退溪의 설의 내용은 두항으로 되어있다.

첫째 불(火)에는 기름이 있으므로서 밝은 빛과 불길을 가지기 때문에 어두움을 밝혀 깨칠 수 있고<sup>33)</sup>

둘째 거울은 水銀이 있으므로서 저렇듯 정밀하고 밝음을 가지기 때문에 곱고 또 곱지 못한 것은 비쳐 나타낼수 있는 것이다. 理와 氣가 합하여 心이되어서 저렇게 虛靈하여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事物이 보이자마자 모두 知覺할 수 있는 것이다<sup>34)</sup>

위에서 比喻한 바같이 「불이 밝다」든가 또는 「거울이 사물을 비춘다」든가 하는 것과 그렇게 하게하는 것의 原理가 동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와같이 原理가 있다는 認識은 어떻게해서 가능한가. 이점에 관해서 退溪는 涵養과 體驗에 의해서 입을 말하고 그것은 노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노력에 의한다는 여기에 「깨달」이라는 直觀的인 방법을 버리고 實踐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실천에 관해서 退溪는 子中에게

그런즉 지금은 다만 이러한 明訓을 더욱 涵養하고 體驗하는 공부를 거듭한 후에야 자연히 이해하여 豁然히 貫通할 것이다. 만약 노력을 다하지아니 하고 달리지深하고 至妙한 원리를 찾으려 한다면 반드시 허무맹랑한 지경에 빠질 것이며 疑惑이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sup>35)</sup>

30) 有問於朱先生曰, 知覺是心之靈, 固如此抑氣爲之耶. 曰不專是氣是先有知覺之理, 理未知覺氣聚成形, 理與氣合便能知覺.

31) 譬如這燭火是因得這脂膏, 便有許多光焰.

32) 又曰所覺者, 心之理也, 能覺者氣之靈也.

33) 攄因謂火得脂膏而有許, 多光焰, 故能燭破幽闇.

34) 鑑得水銀而有如許多精明, 故能照見妍妙焰, 理與氣合而爲心, 有如許虛靈不測, 故事物纔來便知覺.

라고 하였다.

## 〈其二〉

### 1. 志와 意의 해석 (二)

志와 意에 대한 제 2차의 문답은 明宗年丙寅(一五六六)으로서 退溪 66才 때 일이다. 이 문답서는 文集 卷二十六答鄭子中第46書로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이답서에서의 子中의 질문은 모두 3個項으로 되어 있다. 그 셋항은 첫째가 志와 意, 둘째가 費와 隱이며 끝으로 셋째가 性과 氣에 관한 것이다. 제 1 항부터 순차로 살펴 보기로 한다.

退溪는 志와 意에 대한 의논은 전일의 서신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하면서 子中이 보내온 해석은 자세히 보니 잘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있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 설명을 보면 다만 志・意 두字는 道理가 본래 관계되는 것도 아니며 서로 首尾의 관계도 아니어서 志가 앞이나 意가 앞이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先後관계를 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sup>35)</sup> 志와 意는 이러한 개념이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子中은 나누어서 논하였다. 그런데 이서한에서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을뿐 志・意중 어느 字가 앞인지 알수는 없으나 退溪는 子中이 그렇게 했으므로 자기의 논술에 無理가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退溪는 先이나 後이나 하는 문제는 각각 당한 경우에 따라서 각기 그 나름의 道理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37)</sup> 결국 先後는 志와 意를 고정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었고 志와 意에는 先後관계로 나눌수 없는 성질임을 명백히 하였다.

### 2. 費와 隱의 해석

子中의 질문중 두번째는 費와 隱에 관해서였다. 이 費와 隱은 「中庸」의 第12章의 「君子之道，費而隱」의 費隱이다. 朱子의 注에 따르면 「費는 用之廣」이고 「隱은 體之微」라고 하였는데 退溪는 費와 隱을 中庸에서는 道라고 말하였으니 이道란 形而上의 理라고 설명하였다. 「周易」에 「나타난 즉 顯現된 면으로 말하면 費라하고, 가리워진 즉 隱微된 면으로 말하면 隱이라」고 했을 뿐이지 顯現과 隱微는 별개로 獨立된 둘이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sup>35)</sup> 그래서 程伊川는 『易傳序』와 朱子의 中庸註章에서 해석하기를 「體와 用이 한 根源이요 顯과 微는 無間이라」고 한 그 해석은 그것이 별개로 獨立된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退溪는 자기의 설명을 기술하였는데 그 설명은 만일 形而下者를 費라한다면 어찌 한 根源되며 또 無間이라고 할

35) 今但當因此等明訓，而加涵養體驗之功積累多，後自當有豁然貫通處，若猶以爲未也，而欲別求至深至妙之理，則必墮於虛無莽蕩之域，而所惑滋甚矣。

36) 退溪先生文集卷二十六 今詳論大概公得之，但二字道理元來不相統屬不相首尾，何可分先後耶。

37) 本不當分而強分之故，往往未免有少費力說處，或先或後，當隨事各作一道理看可也。

38) 費隱以道言乃形而上之理也，以其顯而言，則謂之費，以其微而言，則謂之隱，非有二也。

수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이었다.<sup>39)</sup>

子中이 禹景善과 許太輝의 說을 옳다고 하면서 本節小註에 있는 朱子說을 인용하여 논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退溪는 그 인용을 잘못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禹景善과 許太輝의 說이 어떠한 것인지는 이 글에서 보는데 알수는 없으나 두사람이 朱子說을 잘못해석 했다고 退溪는 단정한 듯하다. 이리하여 退溪는 그 朱子說을 가지고 설명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朱子の 뜻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形而下를 費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形而上과 下에 관해서 그 개념을 들었기 때문에 形而下가 廣義여서 그것을 먼저 말하였으며 이어서 形而上을 말하였는데 形而上이란 것은 形而下的 세계에서 形而上이 物마다 갖추어 지지 않는 것이 없어서 「無物不具」요, 있지 않는 곳이 없으니 「無處不有」한 것이다. 그래서 費라고 하였었다.<sup>40)</sup> 그러한 즉 形而下를 말한것은 사실은 形而上을 설명하기 위하여 말한것 뿐이었다. 실상은 費字로 形而下인 事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41)</sup>

### 3. 性과 氣의 관계

이렇게 朱子の 中庸의 費를 설명한다면 다시 『中庸章句』의 性과 氣에 관해 註解한다. 章句에서 中庸 첫장의 「天命之謂性」을 해석한 곳에서 먼저 陰陽五行을 말한 다음 「理 또한 賦與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러한 朱子の 해석을 가지고 그 문제의 「天命之謂性」을 氣라고 할 수 있겠는가<sup>42)</sup> 하고 子中이 그것을 氣라고한 주장을 잘못이라고 하였다. 退溪의 註解는 이러하다. 『中庸』의 「天命之謂性」은 天이 命한것, 天이 부여한 것을 性 즉 本性 또는 性質의 性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人間은 물론이며 萬物에 주어져 있으며 朱子는 註에서 「性即理也」라고 하였다. 이래서 子中이 「天命之謂性」을 氣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것이었다.

또 『中庸或問』에서 楊龜山이 논한 가는곳마다 道가 아닌것은 없다는 「無適非道之說」은<sup>43)</sup>은 지금 오로지 形而下만을 가지고 道의 用이라 했다면 이논리대로 하면 穿衣・食・作・息・視・聽등의 행동하는 것을 道라고 하게 된다. 그렇다면 義理의 準則이 道임을 모르는 것이 된다. 이리하다면 그러한 생각이 어찌 子思나 朱子의 뜻이 될 수 있겠는가<sup>44)</sup> 라고 한 것이 있다. 그런 까닭에 『語類』가운데 朱子의 여러 한 說에

39) 故曰體用一源，顯微無間，若以形而下者，爲費則豈一源無間之謂乎。

40) 詳朱子意非以形而下爲費，因或人所舉形而上下兩言而言，故先說形而下者之廣，而乃曰形而上者實行乎，其間而無物不具無處不有，故曰費。

41) 則其說形而下者，正所以爲說形而上者設耳，實非以費字當形而下之物也。

42) 亦如章句解天命之謂性處，先言陰陽五行而後，乃曰理亦賦焉。今豈可因此而說，天命之謂性亦爲氣乎。

43) 按道不可離章，或問所論龜山楊氏無適非道之說云云。

44) 今專以形而下爲道之用，則便是以衣食作息視聽舉履爲道，而不知其義理準則之爲道，豈子思朱子之意乎。

費隱은 모두 道字나 理字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가운데 한대목에서 「費는 形而下者요, 隱은 形而上者」라고 하기는 하였지만<sup>45)</sup> 어떤 사람에게 한 답에는 「이것은 고정하여 말할수없고 그 의미로 보아서 알아야 할 것이니 物과 理를 對로 하여 말하면 이것이 이런 것이나 오직 理만을 가지고 말하면 이와같은 것이니 그렇다면 費 이것은 道의 用이요, 隱이것은 道의 所以然이라고 볼수없는 것이다」라고 한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같이 朱子가 或人에게 답한 가운데 머리 부분의 말은 대략 許太輝說과 같다. 그러나 그 끝부분의 말은 결국 理字와 道字로 맺었는데 太輝는 本論아닌 枝論만을 고수하여 원래부터 不易의 本義를 쓰지않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아쉬워하였다.

45) 故語類中朱子譜說費隱皆以道字理字言之, 其中一段雖云費是形而下者, 隱是形而上者而其下.